

보도시점 2026. 10. 15.(목) 11:30 (2026. 10. 15.(목) 석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T, 안전문화 확산·안전격차 해소 위해 맞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T 업무협약
- 공단의 전문성과 KT의 인프라 활용해,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원하청 안전격차 해소 협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0월 15일(목)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2026. 10. 15.(목) 11:30
- 장소 : KT 광화문 본사 12층 회의실(서울 종로구)
- 참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및 KT 김영인 부사장

KT는 그동안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참여하여 공단과 함께 각종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안전문화 외에도 원하청 안전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업 특화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단기 노동자의 재해예방에도 힘쓰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간, 안전 홍보 영상을 광화문 대형 스크린에 송출해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한 사례는 KT의 대중성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중 하나이다.

이에 공단은 기업 원·하청 노동자의 재해예방활동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온 KT와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한 일터 구현과 안전문화를 산업현장과 국민

일상까지 빠르고 폭넓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공단의 산업안전 전문성과 국민 생활 전반을 연결하는 KT의 대중성을 결합하는 점에서 안전 문화 확산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과 KT는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참여 및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국민 안전 메시지 확산,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국민 고객 접점 대표 기관인 KT의 홍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전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간안전체험교육장 등을 활용해 협력사와 지역의 작은 사업장 대상 사이의 안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활동 등에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KT의 폭넓은 홍보 인프라를 통해 안전 메시지를 더 빠르게 전하고, '안전'이 사회 전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 협력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문화부	책임자	부 장	최원창 (052-703-0425)
		담당자	차 장	심동윤 (052-703-0725)

